

고흥군, ‘장애인목욕탕’ 개관...폭 넓은 복지 인프라 구축

고흥읍 남계리 일원 지난해 4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대상 주4회 운영...이용료 ‘무료’

고흥군은 29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송귀군 군수, 이재학 부의장과 지역의원, 장애인 4개 단체대표(지체·신체·농아인·시각)와 장애인복지관 이용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중심의 알찬 ‘장애인목욕탕’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장애인 목욕탕 건립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단체의 절실한 욕구가 반영된 보건복지 분야 민선7기 송귀군 군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장애인목욕탕은 지난해 4월 착공되어 올해 6월 완공되었으며, 총 사업비 17억원(국비 5, 도비 4, 군비 8)을 투자해 530㎡ 면적, 지상 2층 규모의 현대식 목욕탕으로 신축되었다.

1층은 문턱과 계단을 없애 휠체어 이용이 용이한 일반탕 1개와 미끄럼 방지, 목욕의자, 누워서도 목욕이 가능한 보호자 동반 가족탕 2개를 배치

하였고, 2층은 여가 및 쉼터 공간 활용이 가능한 대강당 등 다목적 복합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흥읍 남계리 일원에 위치한 목욕탕은 전남 도내 6번째 개관이나, 목욕탕 별도건물과 가족탕까지 갖추고 있어 규모 면에서 가장 앞선다.

이용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등급제 폐지 전 1~3급) 장애인으로 주4회 운영되며, 이용료는 없고, 매주 월·목요일은 여성, 화·금요일에는 남성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 가능한 가족탕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원봉사자를 연계 지원하여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한 중증장애인은 “중증목욕탕을 이용할 때 타인의 불편한 시선에 노출되어 방문을 꺼리게 되었는데, 이제 마음 편히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흥군 내 등록 장애인 수는 7,518명이며 군 전체 인구의 11.6%로 전



남도 평균 7.6%, 전국 평균 5%와 비교했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을 위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 목욕탕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활력을 되찾

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권 장애인복지관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은 장애인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큰 결단”이라며, “이제 고흥군 장애인 전용 목욕탕에 오셔서 육체의 때도 벗기고, 마음의 응어리도 씻겨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가정 내 목욕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반 목욕탕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흥군 장애인 목욕탕을 개관하였다”며, “장애인 목욕탕이 삶의 안식처이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구례군,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식·치매파트너 교육 실시



구례군은 지난 28일 치매안심마을인 간전면 내의 간문초등학교를 치매극복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였다. 치매파트너 교육의 목적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확산 및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할머니의 기억주머니 이야기’를 통해 쉽게 치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치매 OX 퀴즈를 통해 교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간문초등학교 학생은 “치매가 어떤 질환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 마을에서 치매 어르신을 만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식을 계기로 간문초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역사회 기억지킴이로서 활동하여 간전면이 치매친화적인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당신의 작은 관심이 희망을 만듭니다”

영광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1인 생계비 45만원 등

영광군은 긴급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단기간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0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긴급히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영광=서희권 기자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5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하, 주거비 18만 원, 복지시설 이용 53만 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행위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는 위기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061-350-4880)로 신청 및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몰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몰 검색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yYkSbhc69PqCpYQ>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